

‘아버지의 죽음’ 모티프에 나타난 조이스의 사회역사적 비판 의식

이 인 기

조이스는 아버지를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한 인물로 자주 묘사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모습은 죽음의 이미지와 결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아버지의 죽음’ 모티프는 그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의미와 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 우선 그가 염두에 둔 아버지의 의미를 살펴 보면, 아버지는 절대자 혹은 실체의 상징으로서의 존재이기도 하고 사회역사적인 실존으로서의 존재이기도 하다. 그리고 죽음은 그 위상과 주로 연관되는데 그 위상에 관한 한, 아버지는 거부의 대상이자 추구의 대상이다. 죽음이 존재의 소멸이기도 하지만 재생의 동기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버지가 이러한 역설적인 위상을 부여받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아버지의 의미와 위상은 그 정체에 관해서 네 가지의 담론을 형성하게 된다. 즉 절대자 혹은 실체의 상징인 아버지가 단순한 상징으로 전락한 경우와 신으로서 거듭 태어나는 경우, 그리고 사회역사적 실존인 아버지가 그 지위를 거부당하는 경우와 새로운 지위를 회복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실체가 상징으로 전락하는 경우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한 라강(Jacques Lacan)의 분석을 위시하여 해체주의적 이론들을 원용하여 설명할 수 있고, 신으로 거듭 태어나는 경우는 그 상징성의 강화나 신으로서의 예

술가 상과 연관시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존재의 소멸을 겪는 경우는 자연적인 죽음은 차치하고 사회역사적인 영역에서의 존재 의의의 박탈, 곧 부권의 상실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재생을 지향하는 아버지의 죽음은 부권의 회복 혹은 역사적 재건에 대한 염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의 담론은 조이스에 관해서 학술적인 연구가 시작된 50년 대 이후부터 순서상의 차이는 있어도 줄곧 논의되어 왔다. 그 논의는 주로 전기의 기록을 토대로, 혹은 신비평적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정신분석학적 및 해체주의적 비평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논의들은 조이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존재를 친부에 대한 거부감의 표출로, 이성과 전통에 대한 저항 및 성숙의 모형으로, 그리고 실체 혹은 로고스의 부재에 대한 인식의 표현 등으로 해석하였을 뿐 그 존재가 사회역사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는 사실은 조명하지 않았다. 이것은 상기의 논의들이 그의 '무역사적(Hofheinz 48)' 특성을 논의 전개의 공리로서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회와 역사에 대한 그의 역설적인 태도는 그의 무비판성과 비역사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는 사회와 역사에 대해 무관심한 모더니스트라는 부당한 평가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상기의 담론들 중 사회역사적인 존재로서의 아버지는 조이스의 사회역사적인 면모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사회역사적인 존재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은, 그가 부권의 상실을 염두에 두었든 부권의 회복을 염원하였든, 사회와 역사의 현상에 대한 그의 심문과 반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기의 논의들도 아버지를 사회화의 통로, 혹은 이성과 전통을 위시한 제도상 권위의 표상 등으로 인식하기는 했으나, 그 존재가 부권의 상실을 대변하는 동시에 부권의 회복에 대한 염원을 담보하기 때문에 사회와 역사에 대한 그의 비판적 통찰을 매개하는 존재라고는 평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국의 역사가 배신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그의 역사인식을 고려할 때 사회역사적인 존재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은 그 악몽 같은 역사와 결부되므로 부권을 상실한 존재로서의 아버지로 될 수밖에 없으며, 이 점에서 그의 사회역사적인 비판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고는 네 가지 담론들 중 부권을 상실한 존재로서

의 아버지의 모습을 주로 천착함으로써 조이스의 사회역사적인 면모를 복원시켜 보려고 한다. 이 작업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환기시키는 사회역사적 상황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조이스를 발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를 사회역사적 상황과 결부시켜서 파악하는 이 작업은 사회역사적 상황이 허구의 무한한 세계에 대해서 초월할 수 없는 물질적 한계를 상기시켜 준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 세계를 근거 없는 초월주의로부터 구원하며, 동시에 그가 사회와 역사의 상황을 심도있게 통찰하였다는 사실을 밝혀 줄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아버지의 죽음’ 모티프를 부권의 상실에 한정하여 분석하되, 그 계기가 두드러지게 제시되어 있는 『율리시즈』의 “헤이디즈” 장을 중심으로 조이스가 사회와 역사에 대한 자신의 비판 의식을 어떻게 구현하였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1. 부권의 상실과 죽음

『율리시즈』의 “헤이디즈” 장에는 한 아버지의 죽음을 조상하며 장례를 치르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장례 마치는 죽음을 환기시키는 어구와 표현들을 해집으며 더블린 시내를 통과하고 그 마차를 탄 문학객 블룸의 의식의 흐름도 죽음과 관련된 사건과 사물들의 언저리를 맴돈다. 더구나 오디시어스의 여행과는 대조될 정도로 빠르고 쉽게, 그리고 ‘대낮에 지옥을 여행하는(Adams 91-2)’ 블룸의 행적은 더블린이 죽은 자들의 왕국(Kenner 250)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장은 산송장으로서의 삶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빈사 상태에 처한 더블린의 정신적 분위기를 대변(Peake 188)하거나 음울한 세기말적인 분위기의 객관적 상관물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헤이디즈” 장을 통해서 조이스가 품은 세계관의 단초를 확인하는 것도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인 해석은 루카치도 지적한 바 있는 현실성의 회박화를 조이스적 세계관의 한계로 규정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이 장에서 조이스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일관되게 진지하거나 음울하지도 않을뿐더러 흔히 언급되듯이 “죽은 사람들”에서처럼) 더블린 전체의 정신적 분위기를 단정 짓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그는 죽음을 현실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나 간혹 익살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세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블룸이 느낀 대로, 심장마비는 ‘뽀프’가 어느 운수 나쁜 날에 막혀버린 현상(U 87)이며 죽음은 부활과 생명이라는 ‘다른 세상’을 회구하게 하는 동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살고 있다(U 89)는 사실은 그 표면적인 의미와는 달리 현실 세계에서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따뜻하고 원기왕성한 삶(U 94)’에서 더 큰 의미를 찾으려는 삶의 지표를 암시한다. 이처럼 죽음이 지극히 물질적인 어조로 묘사되기도 하고 종교적인 의미와도 연관되지 않는 점에서는 더블린의 정신 세계를 짓누르고 있다는 죽음의 심각성이 오히려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묘지에서 사이먼과 네드 램버트가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그 죽음의 무게는 회로당하기까지 한다. 사이먼이 고향인 코크 시에 사는 덕 티비의 근황을 묻자 램버트는 “그 친구 맛이 갔어(Nothing between himself and

- 1) 게이브리엘 콘로이는 죽음으로 포위된 사람들 속에서 지냈고 자신도 죽은 사람임을 깨닫는다. 그런데 그때 그는 자신이 서부로 여행을 떠날 때가 온 것을 감지하는데(D 223-24), 서부 지방은 이모 댁의 파티에서 아이버즈 양과 아내가 언급한 곳으로서 아일랜드적인 삶을 죽음과 결부시킬 수 있게 하는 요소이다. 그 지방은 원주민들이 여전히 게일어를 사용하며 신화와 전설을 간직하고 있어서 아일랜드적인 삶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840년대의 대기근의 여파로 그 곳은 이농 현상이 심화되어 음산하고 텅빈 폐허로 변해서 서부로 가면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죽음의 암시가 서린 지역이 되어있다. 따라서 그의 의식 속의 서부는 아일랜드적인 삶의 죽음을 상징한다. 더욱이 아일랜드가 영국의 서쪽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아일랜드의 현실 상황이 죽음을 환기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게이브리엘이 감지한 서부로의 여행은 곧 죽음의 인식을 의미한다.

물론 서부로의 여행이 아내에 대한 새롭게 깨달은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고 친영파로서 동부(영국)적인 삶을 동경하고 찬양하던 과거의 자신이 죽었음을 암시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 아일랜드 전체의 분위기를 죽음으로만 단정지을 수 없는 유보가 생기기는 한다.

heaven)”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사이먼은 “딕 티비가 벗겨졌다고(Dick Tivy bald)?”라며 놀라워하는 표정을 짓는다(U 84). 기력이 쇠진하여 죽음을 앞둔 상태가 사이먼의 습관적인 익살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례 마차에서 내내 독설을 휘둘러 대던 그가 아내의 죽음을 생각하며 갑자기 흐느껴 우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의 동료들처럼 그의 상심을 공감하는 한편으로 아연한 실소를 감추어야 하는 느낌도 갖게 된다.

따라서 “헤이디즈” 장에서 죽음을 더블린의 정신상의 표상으로 보는 것은 더블린의 가정에 있는 따뜻한 침대 속에 유령들이 자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변덕스러워도 따뜻한 침대에서는 살아 있는 따뜻한 존재가 자야 된다고 느끼는(U 94) 블룸의 삶의 태도를 도외시하는 판단이다. 그는 비록 죽음의 비감스러움을 인식하고 있기는 해도 망자가 남기고 간 처자식의 생계를 염려하는 등 여전히 계속해서 살아가는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더블린 전체의 정신상보다는 한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의 의미를 천착하는 것이 포괄적인 평가의 부주의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앞서 더블린 전체의 정신상에서 언급되었던 조이스의 역설적인 세계관의 포망을 벗어나 있는 듯이 보인다. 비록 아버지에게 관한 한, 부권의 상실과 그 회복에 대한 염원이 교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건은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비판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사건은 아버지를 위시하여 애국 지사나 신부와 같은 아버지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권위의 상실을 반복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문상객들은 더블린 시내를 두루 행차하며 애국 지사들의 죽음을 확인하였고 묘지에서는 신부의 비하된 위상을 목격하였으며 한편으로 그들 스스로도 하나 같이 부권을 위협당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노정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현장을 통해서 아버지 형상의 권위의 상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은 그 형상에 대한 비판이 일관성과 역사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아버지 형상에 대한 비판의 일관성은 스티븐의 발언과 행적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입증된다. 그는 헤인즈에게 자신이 섬겨야 하는 세 주인에 대해

말을 한 적이 있다.²⁾ 그가 거론한 자신의 주인은 영국과 교회와 아버지, 즉 당시 사회에서의 아버지 형상들인데 장례가 있는 날 확인된 그들의 위상을 살펴 보면 그들은 바로 그가 깨어나고 싶어하는 역사의 악몽(*U* 28)의 실체 들임을 알 수 있다. 영국과 조국의 정치인들, 신부들, 그리고 아버지는 물리적, 문화적 압제를 자행하거나 그 일에 부역하고, 신도들의 여망을 배신하며, 가정의 빈곤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도 가부장적인 권위만을 고수함으로써 그 표면적인 권력과는 달리 존경과 숭모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스티븐은 그들이 자신의 영혼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대상들에 대한 불복종을 결심하였었다(*PA* 246-47).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이스가 살았던 당시의 사회에서는 스티븐의 비판을 추진할 수 있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것은 한 아버지의 죽음에 유지하는 비판의 역사성을 입증한다. 종교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동의 무의식에 억압으로서 작용하는 과정에 대한 사실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Brivic* 74) 당시의 사회에서 신부들은 이러한 과정을 실제 생활 속에서도 추론할 수 있을 정도의 행태를 자행하였고, 그 억압을 압제로 바꾼다면 정치 제도상으로도 그 억압의 과정은 사실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아버지 형상들은 그 권위를 이미 상실하고 있었고 그들에 대한 거부와 반항이 사회의 기조로 형성되어 있었다.

2) 스티븐은 두 주인의 정체만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나는 두 주인, 영국 주인과 이태리 주인을 섬기는 종이야. 스티븐이 말했다. . . 그리고 나한테 이상한 짓을 하도록 요구하는 세 번째 주인도 있어(*U* 17).” 그가 분명히 밝히지 않은 이 세 번째 주인의 정체를 뮤즈라고 보는 지적(*Hodgart* 75)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예술가가 자신의 뮤즈에게 헌신하는 종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종은 주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는 않으므로 이 지적은 스티븐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할 수가 없다. 그가 세 번째 주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거부감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주인은 그가 예술가로 비상하기 위해 극복하려고 했던 그 세 번째 대상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대상은 바로 가부장적 전횡을 자행한 가정의 주인, 즉 아버지이다.

이전 세대의 수동적인 태도와 반역 행위를 수치스러워하는 풍조는 근대 아일랜드 역사를 움직이는 강력한 추진력이었다. 토지 동맹(The Land League) 세대는 대기근 당시 도살장의 양처럼 매우 온순했던 세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느꼈다. 그리고 토지 동맹 세대인들—파넬의 동시대인들—은 그들의 후속 세대에 의해 반역자나 겁쟁이들로 비쳤다. 그들은 한 영국인[영국 수상 클래드스톤]의 본부에 따라서 늑대들에게 파넬을 던져 주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 . . 파넬의 몰락은 아일랜드 사회 내부에 권위의 이중적 위기 현상을 야기시켰다. 부모의 권위가 흔들렸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하게 가톨릭 사제의 권위도 흔들렸다. (O'Brien 123-25)

물론 이러한 사회 현상을 우유가 썩어야 치즈가 되며(U 94) 모든 금요일이 목요일을 매장하는(U 90) 것과 같은 세대 교체의 한 조짐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 사회에 있어서 그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이기 이전에 사회 전반의 권위 체계를 뒤흔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각인되어 있다. 실제로, 위력적이었던 웨스포드(Wexford) 항쟁, 합병을 전후한 무력 시위, 시티즌이 암흑의 해로 명명한 47년의 대기근(U 270) 당시에 벌어졌던 친영적인 지주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파넬의 몰락과 일차 대전의 발발로 인한 자치제 실시의 유보가 자극한 1916년 부활절 혁명 등, 이러한 거사들이 겪어야만 했던 실패와 좌절은 이전 세대인들, 즉 아버지 세대에 대한 거부감을 사회 전반에 만연시켰다. 게다가 거사들의 연속된 실패는 주로 정치인들의 무능과 배신에 의해 초래되었고 그 과정에 교회 사제들이 연루되어 있었으며 그러한 정치 현실에 대한 아버지 세대들의 반응은 자포자기이거나 무계획적인 폭력의 악순환에 얽혀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아버지 형상에 대한 거부와 반항의 기초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스티븐의 불복종(*Non serviam!*: U 475) 결심은 이러한 사회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역사의 악몽을 구성해 온 아버지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3월 21일자 일기에서 예수의 말을 인용하여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지내게 하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과 혼인하게 하라(PA 248)’라고 선언하였는데, 그의 선언은 그

가 아버지에게 의해 구성된 사회와 역사를 죽은 자의 일로 단정하고 있음을 밝혀 준다. 이 선언은 한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사건에 의해서도 그 정당성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그의 비판적 혈기조차 이커러스의 운명과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한 아버지의 죽음은 아버지 형상의 사회역사적인 과오에 대한 비판을 상징하는 사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와 역사 속에서의 아버지의 죽음

한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사건과 스티븐의 언행은 사회를 지배하는 아버지 형상의 권위 상실의 거부의 대상으로서의 죽음의 이미지와 결부시킨다. 그 맥락을 따르면 부권의 상실은 조이스의 비판 의식을 밝혀주는 담론을 구성하게 된다. 아버지의 존재에 부여된 죽음의 이미지는 그 존재들의 행적에 대한 비판의 표상이 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그 비판의 내용과 의의를 천착할 것이다.

우선 본고는 조이스의 비판이 가해지는 사회역사적 환경으로서 조국과 교회와 가정을 설정하였다. 이 세 영역은 스티븐이 역사의 악몽을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아버지 형상의 죽음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된다. 더구나 본 논의가 “헤이디즈” 장으로부터 시작되기는 했지만, 이 장에서 거론되는 아버지 형상은 스티븐이 지적한 유형과 적합하게 상응하고 있다. 비록 이 장에서 스티븐이 블룸의 눈에 띄었을 뿐 어떤 의미 있는 행동도 하지는 않았어도 그 때문에 오히려 조이스가 아버지의 죽음을 그 세 유형으로 고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헤이디즈” 장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되, 스티븐이 지적한 조국, 교회, 가정의 영역별로 아버지의 죽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조국

아일랜드는 1170년 영국왕 헨리 2세의 책동에 의해 정복당한 때로부터

근 700여 년 간 국가의 주권을 상실하였다. 그 동안에 아일랜드인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던 애국 지사들을 통해 조국의 권위를 대리 체험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웨스포드 항쟁 이후에는 민족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므로 그들은 애국 지사들을 그들의 국부(國父)로 추앙하였다. 그러나 1904년 6월 16일 덕넘을 문으러 가는 장례 마차는 아일랜드적인 삶의 총화인 더블린 시내를 두루 통과하면서 그러한 국부들의 죽음을 더불어 확인하고 있다.

장례 마차는 애국자 오브라이언(William Smith O'Brien: 1803-64)의 동상을 지나갔다. 그 날은 그의 기일이기도 한데 그의 동상에는 꽃다발이 바쳐져 있었다(U 77). 그는 1843년 오코넬(Daniel O'Connell: 1775-1847)의 합병법 철폐 운동(Repeal Association)에 가담하였다가 1847년에 보다 행동적인 아일랜드 연맹(Irish Confederation)을 창설하였다. 그 연맹은 1848년 대기근 중에 티퍼러리(Tipperary) 군의 경찰대를 공격하였는데 동족을 분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는 대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징역으로 감형되었고 1854년 석방되어 1856년에는 사면을 받았다. 그후 그의 활동에는 특기 사항이 없으며 1864년 6월 16일 죽었다.

이어서 마차가 지나간 ‘거대한 망토를 입은 해방자의 형상(U 77)’은 오코넬의 동상을 가리킨다. 그는 가톨릭 교도들의 시민권을 제한하였던 형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하였는데, 법률적인 절차의 한계 안에서 도덕적인 힘의 결집을 통해 목표를 성취하려는 방침에 따라 행동하였으며 결국 1829년 시민권을 회복하게 되어 ‘우리의 해방자’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다. 그는 당을 결성하여 합병법 철폐를 위한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선동음모죄로 1년을 복역하기도 했다. 그러나 만년에 그는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지만 당 내부의 친구파간의 갈등 때문에 위력적인 활동을 펼치지는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차는 그레이 경(Sir John Gray: 1816-75)의 조상을 지나갔다(U 78). 그는 “프리맨스 저널(Freeman's Journal)” 지의 경영자 겸 편집자였다. 그는 프로테스탄트였지만 아일랜드 교회의 국교제 폐지와 토지 개혁, 그리고 친구교의 자유로운 종파(宗派) 교육을 옹호하였다. 추후에 “프리맨스

저널”은 파넬(Charles Stewart Parnell: 1846-91)의 정치적 활동을 지원하였으나 그의 대변지 역할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그의 몰락에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글래스네빈의 프로스펙트 묘지에 도착한 문상객들은 장례를 마치고 파넬의 묘지를 둘러보았다(U 92). 그는 『오디세이』의 애거멤논에 상응하는 인물로서 배신을 당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불행한 영웅이었다. 그레이 경처럼 그도 프로테스탄트였지만 가톨릭이 대다수인 아일랜드 농민들의 권익을 옹호하였고 합병법 철폐와 자치를 성취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투쟁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그 와중에 “유매어스” 장에서 상세히 언급된 대로(U 530-32) 그는 이혼 소송에 연루되어 동료들과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죽고 말았다. 파우어 씨는 파넬이 죽지 않았고 그의 관에는 돌이 들어 있으며 그는 미구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소문을 경외스럽게 말하지만 하인즈는 고개를 흔들며 단호하게 대꾸하였다.

파넬은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걸세. . . . 그 분은 저기 있어, 그의
썩어질 육신 모두가. 명복을 빕니다. (U 93)

파넬의 죽음은 가장 최근에 있는 국부의 상실로서 조이스는 그의 죽음의 의미를 진흙 발 신상의 교훈(U 530)에 비꼴다. 조이스는 성경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신상의 교훈을 파넬 사후 국가 지도력의 부재로 파악하였는데, 파넬의 신화가 사실은 그에 앞서 활동한 국부들의 투쟁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본다면, 그 교훈은 영국에 정복당한 이후 국가의 권위를 대변하던 상징이 결국은 소실될 것을 가르쳐 준다. 사실상 그 교훈은 국부들의 하나 같이 지리멸렬한 만년에 이미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국부들의 죽음을 확인하는 행위는 조국 독립의 희망이 송두리째 사라졌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헤이디즈” 장에는 국부들의 죽음이 초래된 근본 원인에 대한 암시가 나타나 있다. 불륜의 상념 속에서 나온 ‘파넬의 기일도 잊혀져 간다(U 91)’는 말은 인간의 망각의 습성을 언급한 것이지만, 아일랜드 정치사에서

질곡과도 같은 요소를 통찰하는 말이기도 하다. 조국의 메시아로까지 추앙되던 인물이 서거(1891년 10월 6일) 후 10여년만에 그의 정치적 이념마저 퇴색되어 간다는 것은 조국의 정치 발전이 지향점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준다. 파넬을 위시하여 동상으로 존재하는 국부들이 모두 합병법의 철폐와 관련된 활동을 주도하였던 사실은 정치가의 지도력이 계속적으로 단절되어 왔음을 반증하고 또한 실제로 그러하였다. 이러한 지도력의 단절 때문에 정치적 상황의 개선이 지연되어 온 것은 700여 년 간 계속되어 온 역사의 고통이었다.

그러나 조국의 정치적 발전은 이처럼 계속 ‘주저’³⁾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사에서는 파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주저’가 분명히 회피되어야 했다(*FW* 35.20)는 당위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자치 혹은 독립을 향한 시도는 계속 좌절되고 있었다. 조이스는 그 ‘주저’의 근본 원인을 통찰하고 있었다. 그는 아일랜드 역사를 결정적으로 왜곡시킨 두 사건으로서 영국의 정복과 의회의 합병을 거론하면서(*CW* 162), 이 두 사건에 개재한 동족의 배신⁴⁾이 바로 조국의 운명을 질곡 속에 빠뜨린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12세기 중엽 소왕국간의 분쟁이 잦았던 시절에 아일랜드 군주들은 노르

3) 이 말은 파넬을 피닉스 공원 살인 사건에 결부시키기 위해 피고트(Richard Piggott)가 날조한 편지 속에 나온다. 그가 날조한 파넬의 편지 속에서 *hesitancy*를 *hesitancy*로 쓰는 그의 습관적인 실수가 발견됨으로써(*FW* 97.25) 그의 음모는 무산되었고 파넬은 더 높은 정치적 위상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일랜드 역사의 흐름은 파넬의 이전이나 이후에나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주저’되었다는 것이 일반 역사가들의 견해이다.

4) “선거 사무실의 파넬 기일”에서 볼 수 있듯이 선거 운동원들이 헨치 씨의 말에 암묵적인 동의를 보내는 것은, 비록 현실적인 상황 대처가 정치의 본질일 수는 있어도, 결국 파넬의 정치적 이념과 노력을 배반하는 일이다. 조이스는 파넬에 관한 한, 동족의 배신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그는 이미 아홉 살 때 “힐리, 너마저도(Et Tu, Healy)”라는 시를 써서 파넬의 부관이었던 힐리의 배신을 비난하였고, 파넬을 제자에게 배신당한 예수에 비기면서 그의 몰락을 애통해 하였다(*FW* 479.14). 이후 그는 배신을 동족의 기질상의 문제로까지 간주하기도 했다(*CW* 189).

만 군대를 끌어 들였고 정복당한 후에는 헨리 2세의 신하가 되어 '오랫동안 영국왕의 대리자로서 저항 없이(long vicefreegal existence: FW 33.30)⁵⁾ 지냈다. 그리고 1800년에는 합병법을 아일랜드 의회에서 가결하였고 그 후에 자치 운동을 통해 '합병법을 철폐하고는 분파주의적 결속 아래 뭉쳐서(FW 585.25-26)'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초래하였다. 조이스가 보기에 아일랜드 역사의 고통은 결국 동족의 배신이 초래한 결과였던 것이다.

스티븐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민족성과 언어와 종교를 운위하면서 다가오는 대학 동기들을 신뢰할 수 없었다. 그는 '토운의 시대부터 파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명예롭고 진지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젊음, 그리고 애정을 부었지만, 그때마다 그들을 적에게 팔아 넘기거나 곤경에 처한 그들을 좌절시키고 그들을 비난하며 그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간(PA 203)' 자들이 자신더러 한 통속이 되라고 하느라며 그들의 배신적 성향을 비난하였다.

조이스는 『율리시즈』에서 '동족의 영혼을 팔고 지도자를 배신한 아일랜드 인들(PA 193-94)'을 시티즌이라는 인물로 구상화시켜서 그 인물이 내뿜는 광포한 민족주의적 언사를 회화화하는 한편으로 가열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는 민족주의 운동이 조국에 대한 또다른 배신을 예비한다고 보고 불륜을 통하여 그들의 시도를 돈키호테식의 망상에 버금가는 굉장한 헛소리이며(U 524) 그림자로 비친 뼈다귀를 물어 채려는(U 525) 것 같은 허망한 짓거리라고 규정하였다. 그에게 아일랜드는 제 새끼를 잡아먹는 늙은 암돼지(PA 203; U 486)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조이스는 장례 마차가 도살장으로 가는 소떼 사이에

5) 이 어구에 관해서는 오드와이어(O'Dwyer)가 역사적인 배경 설명과 더불어 자세히 논급하고 있다(O'Dwyer 178-81). 맥휴(McHugh)는 vicefreegal을 viceregal로만 설명하고 있지만 오드와이어의 설명을 참고하건대 이 어구를 '영국왕의 대리자(Vice-Regal)로서 저항 없이(vice-free) 지낸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환기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이것은 역사가 오브라이언(O'Brien)이 제기한 아버지 형상의 권위 상실 현상에 대한 역사적 기원을 설명해 줄 수도 있다.

서 잠시 멈추었을 때 파우어 씨로 하여금 죽으러 가는 그들을 이민들에 비유하게 하였다(U 81). 그의 비유는 대기근과 영국의 수탈을 피해서 동족이 관 같은 배를 타고 죽음의 이민 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U 270) 최근의 역사를 상기시켜 준다. 이 같이 조국의 역사가 파넬을 ‘무관의’ 왕(U 534)으로만 남아 있게 만들었으므로 그는 정치의 죽음과 아울러 국민의 앞길에 대해서도 암울한 예견만을 내비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 교회

묘지에 도착한 문상객들은 죽음의 파수꾼다운 인물과 마주쳤다. 그는 『오디세이』에서 명부를 지키는 개 서버리스에 상응하는 인물로서 과연 독먹은 개처럼 두꺼비 같은 배를 터져버릴 듯이 불뚝이고 개 주둥이에다 두꺼비 눈, 그리고 땀마귀의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코피 신부이며 불륨은 그의 이름이 관처럼 들린다고 느꼈다. 사제의 존재 자체가 이처럼 죽음을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거하는 곳이 싸늘하고 해로운 가스로그득 차 있어서 지옥 같은 곳이라면 그는 현실 세계에서는 이미 죽어 없어진 존재이다.

스티븐의 인식에 따르면 사제는 죽음을 강요하기까지 하는 존재이다. 그에게 사제직을 권유하던 신부는 차양의 끈을 꼬아서 교수대의 밧줄처럼 고리를 만들었는데 과연 그가 제시하는 사제로서의 삶도 지옥 설교를 통해서 죽음의 공포를 창출하고 매사에 복종을 강요함으로써 정신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신부가 빛을 등지고 서서 깊게 패인 관자놀이와 두개골의 윤곽을 드러내 보였던 것은(PA 154) 그가 죽음의 화신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사제가 영원과 안식을 약속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처럼 죽음을 연상시키는 존재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이스는 그 이유를 우선적으로 사제가 ‘무서운 권력자(PA 158)’라는 사실에서 찾고 있다. 그는 사제가 ‘신의 눈동자(PA 38)’이므로 ‘그를 홀대해서는 안 된다(U 85)’는 신의 말씀을 배경으로 신도들에게 전횡하여 왔음을 지적하였다. 그가 보기에 사제들은 지옥

설교를 할 때처럼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라틴어를 사용하여 지식을 독점하며 그것을 토대로 권력을 재생산하고 있었다.⁶⁾ 이처럼 신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자기 영역의 보존을 위해 휘두를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의 재생산 기제까지 갖추고 있는 사제들은 이미 신도들의 고통을 위무하는 신의 사자가 될 수 없다.

장례 마차 속에서 잠깐 언급되는 민중 가요 “삭발단원(The Croppy Boy)”은 신도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까지 조건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노래 속의 단원은 부활절 이후 욕을 세 번하였고 한 번은 미사 때 놀러갔으며 교회 묘지를 지나치다 어머니의 영면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이 죄스러워 고해를 하고자 하였다. 사제는 이처럼 신도들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여 죄의식을 심어줌으로써 그 삶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절대 권력 때문에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실제 주권을 교회가 쥐고 있다고 조롱하기도 했다(CW 173).

또다른 한편으로 “삭발단원”에서는 아일랜드 교회가 저지른 역사적인 과오에 대한 암시를 읽어낼 수 있다. 그 단원은 굳이 그런가 신부에게 가서

- 6) 조이스는 “라틴어는 함축적이어서 박식한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보 소유층의 번역을 통해서만 그 의미의 전달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라틴어는 그 계층의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CW 29)”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장례식을 집전하던 코피 신부가 굳이 라틴어를 사용한 것도 일반 신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위를 더 인정하게 하고 싶은 의도(U 85)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푸코(Michel Foucault)의 인식 속에서도 발견되는데 그는 지식과 권력이 직접적으로 서로를 함축하며 역사 속에서 서로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Foucault 163). 그래서 지식과 권력의 상호 함축 과정에 대한 그의 분석을 따르면 현상적으로 드러난 교회의 정보 독점이 권력을 양산하고 지배 체제를 구성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7) 조이스가 편지로 써서 보낸 “삭발단원”의 가사에 신부의 이름은 브린(Breen)으로 나온다(Letters II, 334). 그러나 편지의 편집자가 주를 통해서 지적한 대로 조이스가 기록한 가사의 내용은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기포드가 조사한 가사의 내용(Gifford 240)을 참조하기로 한다. 기포드는 신부의 이름을 그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고해를 하고자 했는데 그린은 아일랜드의 상징 색깔이기도 하므로 종교가 이미 생활화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지만 그의 자리에는 신부를 가장한 영국군 장교가 대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신부는 정치사의 격동 과정과 맞물려 교회가 동족에게 보여 주었던 행태의 전말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 신부의 정체는 영국군이었던지 교회는 동족에게 위해가 되는 이적 행위를 자행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린 신부가 살해되었듯이 사제들은 아일랜드인들에게 죽은 존재였고, 그가 실상 영국군이었던 것처럼 오히려 그들이 죽여버려야 할 대상이었다.

“삭발단원”이 환기시키는 사제들의 이적 행위는 조국의 합병과 관련이 있다. 삭발단원들이 주도한 웨스포드 항쟁은 위력적이었기 때문에 이에 위협을 느낀 영국은 아일랜드와의 의회 합병을 추진하였다. 조이스는 영국 수상 피트(William Pitt)가 합병을 위해 아일랜드 의회원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사제들을 회유할 작업도 병행하였던 사실에 주목하였다. 피트 수상은 아일랜드인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가톨릭 교도이었기 때문에 미연에 사제들의 환심을 사들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1697년 이래로 가톨릭 교도들의 시민권을 제한해 오던 형법의 폐지를 합병 목인의 대가로 제시하였다.

케이지 씨의 비난을 보면 교회가 피트 수상의 제안을 따라 조국의 장래를 배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래니건 주교가 콘월리스 후작에게 충성의 설교를 했던 합병 시기에 아일랜드 주교들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단 말이요? 주교들이 가톨릭 교도의 해금을 바라고 1829년에 자기 조국의 여망을 팔아먹지 않았단 말이요? 그들이 설교단과 고해실에서 페니언 운동을 비난하지 않았소? 그리고 그들이 테런스 벨루 맥매너스의 유골을 모욕하지 않았소? (PA 38)

그런데 케이지 씨가 주교들이 합병법의 통과를 주도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시대착오일 수 있다(Fairhall 128). 그는 교회가 파넬을 몰락시켰던 시점(1889)의 시각으로 합병법(1800)에 대한 교회의 처신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이스가 ‘시대착오’적인 케이지 씨의 견해를 여과 없이 제시

한 것은 그의 착오라기보다 사제들의 배신이 시대를 초월하는 행위라는 그의 인식을 반영한다. 파넬이 몰락했을 때처럼 교회가 의도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교회는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함으로써 합법법의 통과를 결과적으로는 방조하였기 때문에 조국의 장래를 배신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교회는 또한 교리를 내세워 민족주의적 저항 운동에 대체로 반대하는 성향을 표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적 행위를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켈린(Paul Cullen: PA 38) 주교는 메이누스 교리 문답을 인용하면서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은 죄악(Gifford 149)이라며 페니언 운동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비밀 결사에 가입하여 알려지지 않은 인물과 비밀스런 교의에 충성을 서약하는 것은 종교적인 죄악이라고까지 단정하였다. 이에 켈린 주교의 말을 따른 신부들이 고해 중에 신도들에게 페니언에 대한 가입 여부를 밝혀내어 탈퇴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서 파넬의 이력에 치명타를 가한 교회가 케이지 씨의 격렬한 비난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덴티 아주머니는 파넬을 ‘반역자, 간통자’로, 그 소송 사건을 ‘공공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로 규정하고 교회의 도덕적 평결에 관한 의무가 정치에 앞선다는 주장을 했지만, 그러한 주장도 위기의 순간에 동족의 여망을 교회가 저버렸다는 비판을 상쇄하지는 못한다. 조국의 운명이 걸린 시기에 교회가 갑자기 도덕과 질서의 명분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결과적으로 파넬의 몰락을 가속시킨 것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케이지 씨와 사이먼은 이런 행태를 저지른 사제들을 ‘비열한 개놈들’이라 욕하며 격렬하게 비난하였다(PA 33-34).

조이스는 이같이 교회가 자신들의 인신 보호를 위해 저지른 기만 행위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삶에 연연하며 재탐을 부렸던 행적도 간과하지 않았다. 그는 아일랜드인들이 대규모로 신대륙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의 위난 상황에도 교회가 구휼을 베풀기보다는 수탈하는 존재였다고 비난하였다. 지적인 좌절과 경제상의 실패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동족에게 교회는 그들의 곤핍을 배가시켰고 그 당시에도 신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외형적 성장에 주력하는 등 재탐을 부리는 기만을 자행하였다(CW 190).

블룸은 ‘아일랜드는 그와 같은 등숙에 헌신하였지만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고통은 왜?(U 93)’라고 반문하고 있다. 블룸이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통을 언급한 것은 살펴보았듯이 아일랜드 특유의 종교적 배경을 환기시킨다. 아일랜드인들은 스스로를 사제들에게 얹매어 사는 불행한 종족(PA 37)으로 간주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내내 그러할 것이라는 사이먼의 푸념에는 신부가 그들의 삶을 짓누르는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신이라는 절대 권력을 배경으로 ‘경건의 탈을 쓴 기만(U 67)’을 자행하면서 지내 온 교회 때문에 아일랜드에서는 신마저도 죽임을 당한다.

아일랜드에는 하느님이 필요 없소! 그는 소리쳤다. 우리는 하느님이
라면 신물이 났소. 하느님은 꺼져라! (PA 39)

3) 가정

이 날 땅에 묻힌 덕넘은 자식을 많이 두었고 실직 상태였으며 술을 많이 마셨다. 그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구두를 찾아 고래고래 고향을 지르다 심장마비를 당했다. 그는 이미 술이 취한 상태였으나 술을 더 마시려 튜니 점으로 가려고 했다(U 207). 그의 이러한 모습에서는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이었던 아버지들의 행태의 한 전형을 읽을 수 있다. 그들은 가부장적 권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대개 부자 관계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지 못한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이다. 그의 아들이 그를 측은히 여긴 점에서, 장례식 날 모종의 관계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아들과 처남만 참석하고 아내가 오지 않은 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덕넘을 묻으러 갔던 장례 마차 속의 네 명의 문상객들도 하나같이 가장으로서의 그들의 권위가 위태로운 사람들이었다. 파우어 씨는 아내 몰래 정부를 두고 있었고(U 77) 커닝엄은 아내가 난장을 부리는 술꾼이었다(U 80). 사이먼은 아내가 죽고 없는 데다 자식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고(U 195) 블룸은 아들이 난지 열 하루만에 죽은 데다 딸도 슬하를 떠나

있으며 아내마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다. 따라서 장례 마치는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죽어버렸음을 표상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

이들 중 사이먼의 처지는 두드러진다. 그는 아들과의 관계가 몹시 소원하다. 그는 처조카인 크리스를 두고 '자기 아버지를 알아보는 현명한 자식(U 73)'이라고 칭했는데, 이 말은 스티븐을 염두에 두고서 '아무리 현명한 자식이라도 제 아버지를 알아보는 놈은 없어'라고 말하고 싶은 의중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내심 아들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많다.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거부감은 어린 시절 가정의 몰락으로부터 형성되었다. 스티븐은 1시간 25분이 빠른 저그러진 탁상 시계로 상징되는 가정의 물질적 곤핍(PA 174)을 어린 시절부터 감내해야만 했다. 그가 가진 가정에 대한 기억은 무질서와 혼돈(PA 162)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그에게 친구를 사귀는 즐거움이나 남성적인 원기, 그리고 심지어는 자식의 도리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도록 만들었다(PA 96)고 생각하였다.

가정은 어린 아동에게는 자아 보전을 가능하게 하는 안정의 기반이며 아버지는 이 같은 기반을 방호하고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 존재이다. 아버지는 로고스의 전달자이자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권위의 표상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티븐의 아버지는 주사와 무책임한 생활 태도를 일관하면서 가계의 몰락을 가속시키고 자식의 세계관의 안정된 성숙을 오히려 방해하였다. 이 때문에 그에게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존재할 수가 없었다.

스티븐은 크랜리가 아버지의 근황에 대해 묻자 조롱조로 아버지의 전력을 주워섬긴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두루 관심과 직장을 바꾼 후 지금은 파산한 채 자기 과거의 찬미자로서만 남아 있다(PA 241). 이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알고 있던 스티븐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신이 잘 곳도, 친구도, 돈도 없는 처지라 하더라도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사창가에서 술에 취해 혼잣말로 탕자(누가복음 15장 13-32절)의 말을 중얼거린 적이 있었다. "돼지들이 먹는 껌데기들로 내 배를 채우고서. 이걸 그만. 나 일어나 가련다 내 [아버지 집으로](U 422)." 탕자는 자신을 기다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자 결심하였다. 그러나 스티븐은 비록 자신의 처지가 탕자와 흡

사하였을지라도 아버지 집으로 갈 생각이 없다. 자신의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를 자식으로 대접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술 취해 있음을 의식하면서도 다시 피아노 건반만을 두들겼다.

스티븐이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사이먼의 생활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그에게 과거 예찬자로만 인식되고 있는 그는 “작파들”의 패링턴의 행적을 그대로 닮은 생활을 영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직장에서 억눌린 심정을 보상받기 위하여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과 어울리는 패링턴처럼 자신의 왜소해진 심리를 확대 가장하여서 자기만족을 구하고자 한 인물이었다. 사이먼도 패링턴의 작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패링턴의 행위는 사이먼의 행위를 구상화한다. 패링턴이 근무 시간에도 술을 마시며 직장에 충실하지 않는 태도는 사이먼이 가족의 부양을 수입이 없는 큰딸에게 맡겨버리고 소일하면서도 딸의 요구에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와 관련된다. 그리고 아들을 두들겨 팼으로써 자신의 욕구불만을 해소하려는 태도는 사이먼이 자신의 무책임을 험박으로 호도하려 한 태도를 환기시킨다(U 195). 이 같은 아버지들이 주도하는 부자 관계는 사랑과 존경으로 맺어져야 할 관계를 폭압과 반항 및 굴종의 관계로 변질시키게 된다. 패링턴이 자신의 이름보다는 ‘그 사람(the man)’으로 지칭되고 있는 데⁸⁾서 조이스가 그를 당시 사회에서의 아버지라는 존재의 전형으로 제시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위태로운 권위를 지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아버지는 그에게 조롱의 대상이자 이미 없어진 존재에 불과하다. 그가 아버지라는 존재를 필요악이며 법률상의 허구(U 170)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늦은 밤 마차꾼들의 대합실에서 불륜이 그에게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묻자 “더블린 어딘가에 계시겠죠(U 507)”라고 시큰

8) 스크스(Robert Scholes)는 이 점이 그의 우둔함과 명백히 야수적인 남성성을 강조한다고 지적하였다(Peake 31 재인용).

등하게 대답하고, 선원 머피가 사이먼 디달러스를 아느냐고 묻자 “들어본 적이 있다(U 509)”라고 말해버린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아버지의 권위는 ‘옛 예법의 유품’일 뿐이며 초상집 밤샘 동안에 타버린 초심지처럼 채이고 짓밟힌 상태가 되었다(U 77). 그래서 불륨이 장례 마차가 이동할 때 떠올린 “거지의 행로”의 노랫말은 이러한 아버지의 처지를 적절히 대변해 준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지금 유골을 덜컥거리면서 사고무친인(Nobody owns) 거지 신세(U 79)로 묻히러 가는 중이다. 가극 『마르타』에 나오는 가극 “그대 길 잃은 자여 오라!”를 부르고 들으면서 비록 다른 방식이지만 둘다 아내와 자식을 잃은 사이먼과 불륨이 합치될 정도로 공감하는 것(Siopold! Consumed.: U 227)은 그러한 부권 상실의 보편성을 대변한다.

3. 조이스의 사회역사적 상상력

앞서 살펴 본 대로 조이스의 작품에는 사실상 아버지가 ‘없다.’ 그는 국가와 교회라는 아버지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엄연한 현존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악몽 같은 역사를 만들어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열한 비판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한 아버지의 죽음은 문상을 가는 아버지들을 통해 아버지 형상의 죽음을 확인하고 결국은 그들 자신의 죽음까지 조상하는 사건이 되었다.

스티븐이 사창가에서 지팡이로 등갓을 친 행위는 그러한 아버지 형상에 대한 공격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가 공격한 빛은 인공적인 빛, 곧 인간의 제도와 관행에 의해 형성된 아버지의 권위를 암시하기 때문에 그의 공격을 이성, 질서, 전통, 문명을 와해시키는 범죄 행위(Kenner 24)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비록 그 결과가 어둠과 파괴로 나타나기는 했지만(U 475) 그것은 굳이 공격의 결과로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당시 사회에서 부권의 기능 상실 때문에 이미 전개된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이성, 질서 등의 상징으로 파악하여 아버지의 죽음을 실체 혹은 로고스의 죽음과 연계시키는 시각은 조이스에게 있어서 아버지

를 실체의 대명사로 전제한 결과이다.⁹⁾ 예를 들어, 스티븐이 아버지의 존재를 법률상의 허구로 규정한 것은 아버지의 존재를 법, 즉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상징으로 간주한 라캉의 이론(Lemaire 82-88)으로 설명할 수 있는 듯이 보인다. 라캉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실체를 대신하며 ‘아버지의 이름’은 실체의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¹⁰⁾ 그러나 우리가 이제껏 살펴보았듯이 사회역사적인 환경을 담보하는 아버지는 현상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실체의 대명사가 될 수 없다. 조이스는 현상적인, 그 중에서도 특히 억압적인 권위의 대변자로서의 아버지를 거부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이스가 사회역사적인 실존으로서의 아버지를 거부하기는 했지만 부권의 당당한 현존마저도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정치의 영역에서 사례를 찾으면 파넬을 언급할 수 있는데,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파넬은 토지 동맹을 통해서 소작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등 정치적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U 532). 특히 1887년 런던의 “타임즈(*Times*)” 지에 실린 기사(‘Parnellism and Crime’) 때문에 피닉스 공원 살인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당하는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도 그는 그들 세계의

-
- 9) 본고는 사회와 역사의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실존하는 구체적인 현상으로서의 아버지를 다루기 때문에 절대자나 실체를 대리하는 존재로서의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는(U 171)’ 존재, 곧 궁극적으로는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신앙의 아버지들의 행태를 격하게 비난하기는 했어도 신앙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다. 그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 신앙 자체에 대한 공격이 아닌 점을 분명히 밝혔고(Ellmann 256), 『율리시즈』의 우상파괴적인 스티븐도 망모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게(U 199)하였다. 그는 20세기의 무질서하고 황폐한 문화 양상들 속을 헤매면서도 끊임없이 중세적 질서의 세계를 염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본 논의의 범주를 넘어서므로 다른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10) 데리다(Jacques Derrida)는 묘지나 집에 설치한 축음기에 대한 불륨의 단상(U 93)에서 출발하여 축음기 효과를 설정하고 궁극적인 기의의 부재를 설명하려고 하였다(Derrida 1992: 253-309). 특히 그의 『피네간의 경야』론에서는 기표와 지시대상이 서로 이반하여 의미의 차연이 야기되는 서술 구조가 강조되고 있다(Derrida 1984: 145-59).

안정적 수호자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았다. 그때는 자치 법안에 실린 조국의 운명과 자신의 정치 생명마저도 위협당한 시점이었는데도, 그는 무관심하게 손톱을 손질하며 냉정을 잃지 않고 있었고 결국 그 기사가 무고임이 밝혀져 그는 정치적 위상을 더 높이게 되었다. 스티븐이 예술가의 전형으로 생각했던 '무관심한 신'의 모습(PA 215)은 파넬의 이 태도에서 암시받은 것이라고도 한다(Hodgart 24).

교회의 영역에 있어서도 조이스는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며 양들을 인도하는 어진 목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신부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스티븐이 물리학 계단 강의실에서 만난 학감은 사제가 지녀야 할 자애로운 아버지의 품성을 그대로 지닌 신부였다. 그는 빈 교실에서 손수 난롯불을 지피면서 스티븐과 함께 예술과 인생의 길을 논하였다. 그는 허식과 탐욕으로 타락한 신부들과는 달리 텅빈 사원 속에서 미사를 준비하고 있는 겸허한 봉사자(PA 185)로서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는 예전부터 속인들의 약점을 변호해 온 것 때문에 그 자신이 속인으로 지칭되기까지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조이스는 비록 부권이 법률상의 허구이기는 하지만 생은 그 허구적인 관계의 도움을 받아서 연속되며 그 과정을 통해 실체가 구현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빅토리아 여왕에게는 그녀의 아들이 그녀를 뒤이을 새로운 희망으로서의 실체였듯이(U 84) 스티븐도 사이먼의 '아들이자 상속자(U 73)'였다. 이 때문에 조이스는 부권을 상실한 존재로 묘사했던 사이먼에게도 '자식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U 73)'으로서의 면모를 부여하였다. 묘지에서 아버지들이 덕담 유족들을 위한 모금과 보험금 처리 및 자식들의 양육 문제를 논의한 것도 모두 이러한 세계관의 형상화인 것이다. 실제로 조이스도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느 누구도 제 아버지가 저에 대해 가졌던 그 강한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Letters II, 253)"라고 슬회하였다.

그러나 그가 제기한 아버지의 죽음이 이러한 부권의 회복을 위한 전제라고 해석한다면, 그는 특히 페미니스트들로부터 역사를 거스르는, 아니면 역사를 초월하려는 무역사적인 작가로 규정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지만 본고가 다룬 아버지는 실체가

아니었듯이 남성중심주의 혹은 로고스중심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로서의 현상도 아니다. 그가 남성 작가이므로 사회와 역사가 마련해 온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침윤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근거는 박약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성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는 여성 문제에 관해서도 여전히 역설적인 시각을 견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가 염두에 둔 부권의 당당한 현존은 어디까지나 그의 역설적인 혹은 양면적인 세계관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조이스는 이처럼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역설적인 혹은 모호한 서술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살펴보았듯이 아버지가 조국의 사회역사적 상황과 결부되는 한, 그는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었고 (the “doubling” in “Dublin,” and the “Ire” in “Ireland”) 그것을 권위에 대한 가열한 추적을 통해 표현하였다(Mahaffey 14). 그는 역사의 악몽을 형성한 존재에 대해 분노를 토로하였고, 이는 곧 사회와 역사의 기능 실조에 대한 비판 행위가 된다. 물론 이렇게 아버지의 의미를 사회역사적인 조건 속에 한정시켜버리면 조이스의 세계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겠으나 적어도 그가 사회역사적인 토대를 초월한 세계를 추구하였다는 오해는 해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울프가 지적한 대로 ‘물질주의적인’ 리얼리즘의 우(the bogey of realism: CW 44)를 범한 것도 아니며 사회역사적 상황을 작품의 궁극적인 의미로 간주한 것도 아니다. 그는 사회역사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상상력을 통해 동족(독자들)에게 자신을 비쳐 볼 수 있는 잘 닦여진 거울(Letters I, 64)을 제공한 것이다.

4. 결론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조이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죽음’ 모티프는 그가 묘사한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네 가지의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 그 담론들은 일반적으로 조이스의 역설적인 세계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와 역사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조이스를 부각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의 작품 속에 묘사된 사회역사적 상황을 살펴 볼 때 그의 역설적인 세계관으로도 퇴색시킬 수 없는 그의 비판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권의 상실한 존재로서의 아버지가 그의 사회역사적인 비판 의식을 대변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고는 “헤이디즈” 장에 묘사된 한 아버지의 죽음을 토대로 아버지 형상의 죽음을 거론하였다. 덕님의 죽음은 국부들의 죽음과 사제들의 권위 실추, 그리고 아버지들의 가부장적 권위 상실 등을 대변하는 사건이었고 이 사실은 문상객들의 행적과 상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부권의 상실은 스티븐이 거부하였던 조국과 교회와 가정이라는 사회역사적 환경에서 포착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이스의 사회역사적 상상력의 지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정치사에 개재한 배신과 교회가 보여 준 전횡, 그리고 가장의 책임을 방기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이 부각된 것은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형상의 사회역사적 작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비록 이것이 역사적 재건의 염원까지 전제하는지는 분명히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현 사회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환기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이 같이 사회와 역사의 현장에서 부권의 상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조이스의 사회역사적인 비판 의식이 구현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스티븐처럼 세계관이 미숙한 작가가 자신의 어설픈 정의감을 표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에 대한 조이스의 심도있는 통찰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부권의 상실에 기반하여 파악해 본 아버지의 죽음은 사회와 역사에 대한 그의 비판 의식을 담보하고 있어서 그의 사회역사적인 면모를 복원시키는 매개가 된다.

〈가톨릭대〉

참고문헌

- D: *Dubliners*(1914). Ed. Robert Scholes.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7.
- PA: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1916).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4.
- U: *Ulysses*(1922). The Gabler Edition. New York: Vintage Books, 1986.
- FW: *Finnegans Wake*(1939).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9.
- CW: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s.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New York: Cornell UP, 1959.
- Letters I: Letters of James Joyce*. Vol. I. Ed. Stuart Gilbert.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6.
- Letters II: Letters of James Joyce*. Vol. II. E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and Faber, 1966.
- Adams, R. M. "Hades." In *James Joyce's Ulysses: Critical Essays*. Ed. Clive Hart and David Hayman. Los Angeles: UCLA Press, 1974, pp. 91-114.
- Brivic, Sheldon. "The Father in Joyce." In *The Seventh of Joyce*. Ed. Bernard Benstock. Bloomington: Indiana UP, 1982, pp. 74-80.
- Derrida, Jacques. "Two Words for Joyce." In *Post-Structuralist Joyce: Essays from the French*. Eds. Derek Attridge and Daniel Ferrer. Cambridge: CUP, 1984, pp. 145-59.
- . "Ulysses Gramophone: Hear Say Yes in Joyce." In *Acts of Literature*. Ed. Derek Attridge. New York: Routledge, 1992, pp. 253-309.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Rev. Ed. London: OUP, 1982.
- Fairhall, James. *James Joyce and the Question of History*. Cambridge: CUP, 1993.

- Foucault, Michel. *Language Counter-Memory and Practice: Selected Essays and Interviews*. New York: Cornell UP, 1980.
- Gifford, Don, and Robert J. Seidman. *Notes for Joyce: An Annotation of James Joyce's Ulysses*. New York: E. P. Dutton & Co., 1974.
- Hodgart, Matthew. *James Joyce: A Student's Guide*. London: RKP, 1978.
- Hofheinz, Thomas C. *Joyce and the Invention of Irish History: Finnegans Wake in Context*. New York: CUP, 1995.
- Kenner, Hugh. *Dublin's Joyce*. New York: Columbia UP, 1987.
- Lemaire, Anika. *Jacques Lacan*. Trans. David Macey. London: RKP, 1977.
- Mahaffey, Vicki. *Reauthorizing Joyce*. Gainesville: UP of Florida, 1995.
- McHugh, Roland. *Annotations to Finnegans Wake*. Rev. Ed.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91.
- O'Brien, Maire, and Conor Cruise O'Brien. *A Concise History of Ireland*. 3rd. ed. London: Thames and Hudson, 1985.
- O'Dwyer, Riana. "Ireland's 'long vicefreegal existence': A Context for *Finnegans Wake* 34-36." In *The Seventh of Joyce*. Ed. Bernard Benstock. Bloomington: Indiana UP, 1982, pp. 178-81.
-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P, 1977.